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8월 후보작

1 2 3
4 5 6
7 8 9



1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정민 지음/호형출판/첫째권 300쪽 값 22,000원, 둘째권 272쪽 값 19,000원

우리 옛 한시와 그림 속에 담긴 새를 모티프로 문학·회화·조류학 등 3개 학문을 가로지르면서 그 깊이를 확고히 담보한 인문교양서이다. 서술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자료로 제공된 180여 점의 도판 역시 훌륭한 가독성을 지니고 있다.

2 욕망하는 천자문

김근 지음/삼인/728쪽/값 25,000원

천자문이 내포하고 있는 표의문자로서의 상징성을 정치적 욕망에서 찾으면서 흔히 많은 대중학술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학습 대상으로 기능했던 천자문에 동양적 이데올로기의 옷을 입혀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로 이끈다.

3 대한민국 헌법

류이인열 외 위음/박영물출판사/224쪽/값 9,800원

우리나라 헌법과 함께 한국인의 삶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의 사진을 실어 헌법과 국민 간의 친화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북한 헌법 전문을 수록해 분단국가의 서로 다른 헌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 월경하는 지식의 모험자들

강봉찬 외 지음/한길사/888쪽/값 35,000원

56명의 필자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지성인 76명의 활력넘치는 삶을 소개한 책이다. 잡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오늘날, 진지하면서도 도발적인 모험으로 지식의 지도를 바꾸는 삶을 통해 지성인의 새로운 면모를 일별할 수 있다.

5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오강남 지음/현암사/392쪽/값 15,000원

세계 각국의 정신문명을 좌우하는 종교의 특성을 통해 ‘인간과 종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한 책으로서 종교언어를 일상적 언어로 풀어낸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쉬우면서도 깊이를 확보한 대중적 종교학 개론서이다.

6 인간의 힘

성석재 지음/문학과지성사/260쪽/값 8,000원

시골 양반가문에서 태어난 선비의 일탈된 삶을 통해 인간에게 소중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저자의 네 번째 장편소설이다. 특유의 입담과 해학에다 역사적 시공간의 사실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7 풍속기행

이형권 지음/고래살/364쪽/값 18,000원

15년 동안 풍속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저자가 전문문화의 의미와 실재를 조명한 저작이다. 풍속과 함께 풍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삶을 뛰어넘어 민족문화의 자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8 화가와 모델

이주현 지음/예담/324쪽/값 18,000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로 지칭되는 화가와 모델의 만남을 모티프로 미술 작품 이해를 돕는 책이다. 화가의 명성에 가려지거나 미술의 ‘소품’ 정도로 인식된 모델의 삶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9 살림 지식 총서

이주영 외/살림/1~10권 96쪽/값 각권 3,300원

200권 분량으로 기획된 총서의 1차분으로 미국에 관한 10개의 주제를 10권에 담은 시리즈물이다. 지식의 현장에서 논의되는 현안들을 깊이 있게 성찰함으로써 인문학의 활성화에 기여할 밑바탕을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